

EBS와 국어교육

류 규 오*

<차 례>

1. EBS에서 방송된 국어교육
 - 가. 교과강의형 프로그램
 - 나. 비교과-학습자료형 프로그램
 - 다. 일반교양 프로그램
2. 국어교육 프로그램 제작의 난점
 - 가. 국어교육 학습자료 제작의 난점
 - 나. 학습자료 및 교양 프로그램 발전 방향
3. EBS에서 국어교육학회에 대한 제언

1. EBS에서 방송된 국어교육

EBS는 법령상 방송목적이 '학교교육 보완', '평생교육', '민주적 교육 발전'으로 되었다. EBS는 방송목적에 맞추어 다양한 '학교교육', '평생 교육'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하였다. 그 중에 국어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다수 있다. EBS에서 방송된 국어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구분하면 '교과강의형', '비교과-학습자료형', '일반교양' 프로그램 등으로 나눌 수 있다.

* EBS

가. 교과강의형 프로그램

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수능용 교과강의' 및 '내신용 교과강의' 프로그램들이었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게 된 것은 '수능'과 '내신' 관련 사교육 문제가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었기 때문이며 국민적 요구가 EBS에 이에 대한 해결을 바랐기 때문이다.

EBS는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BS위성1TV 전체를 고등학생 대상 수능 교과강의 프로그램으로 집중 편성하였으며 EBS위성2TV에서 부분적으로 중학생 대상 내신교과강의 프로그램을 편성하였다. 한 프로그램당 오전, 오후, 밤 시간대, 그리고 토·일요일 등 주당 4회 방송하여 학생들이 시청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늘렸다.

그러나 EBS가 과연 사교육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해 교육계 일부에서 부정적인 시각도 있어 왔다. 사실 EBS가 사교육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오히려 사교육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사고 자체가 잘못되었다. 헌법재판소 판결 후 교육시장은 자유화되었으며 이런 경향은 갈수록 확대될 수밖에 없다. 서울 강남의 학원열풍은 쉽게 잠재울 수 없는 흐름이다. 다만 문제의 심각성은 다른 데에 있다. 서울 강남의 부유층은 돈으로 교육시장에서 우수한 교육서비스를 받고 있다. 그런데 우수한 교육서비스는 무한한 것이 아니라 대단히 한정되어 있다. 그것을 부유층의 아이들이 독점하게 되면 다른 계층의 아이들은 소외될 수밖에 없으며 교육의 빈부격차는 심화될 수밖에 없다. 특히 지역적으로 외진 곳에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더욱 열악한 환경에 있다. 이것이 현재 서울 강남 학원 열풍의 핵심적인 본질이다.

EBS는 교육기회의 불균등 해소, 교육의 빈부격차 해소를 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실제로 EBS 교과강의 프로그램을 주로 활용하고 있는 아이들도 지방, 도서벽지의 아이들이다. 그들에게 EBS가 우수한 교과강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며 학습능력에서조차 자본이 지배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한국인에게 교육은 계층상승의 장이었다. 앞으로도 교육이 그런 역할을 계속해주길 바라고 있다. EBS는 한국사회에서 이런 문제가 완전히 사라지기 전까지 교과강의 프로그램은 계속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나. 비교과-학습자료형 프로그램

EBS는 학교현장 수업에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하고 있다. 교육과정에서 빠져있지만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이 높은 내용을 다룬 비교과 프로그램과 교육과정의 내용 중 영상화가 가능한 내용을 선택하여 제작한 학습자료형 프로그램이 이에 속한다. EBS의 다양한 비교과-학습자료형 프로그램들 중 국어교육 관련 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적다. EBS에서 학습자료형 프로그램을 주로 제작, 방송한 교과는 과학, 사회, 영어교과이다. 특히 과학, 사회교과는 내용교과이기 때문에 학습자료를 제작하기도 용이하고 수업현장에서 적절히 활용하기도 좋다. 그러나 국어교과는 학습자료를 제작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국어교과의 세부분야인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언어, 문학 중 그래도 자료로 만들기 용이한 분야가 말하기와 문학분야라고 판단하여 이 두 분야 위주로 제작되어 왔다.

고등학생 대상으로는 '즐거운 책읽기'라는 독서교육 프로그램이 제작, 방송되었으며 '고교문학특선'이라는 교과강의와 학습자료가 혼합된 프로그램이 제작, 방송되었다. 중학생 대상으로는 '진리의 오딧세이-국어 토론방'이라는 말하기, 듣기 프로그램이 제작, 방송되었다.

초등학생 대상으로는 EBS가 장기기획 후 제작한 '미루의 요술글방'이 있다. 이 프로그램은 초등 1, 2학년 대상 쓰기교육 프로그램으로 7차 교육과정 쓰기의 내용을 학습자료형으로 제작, 방송한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영상기법을 통해 아이들이 즐겁게 시청하면서 학습할 수 있도록 제작비를 많이 투자하여 제작한 프로그램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 초등 5, 6학년 대상 국어교과 프로그램을 기획 중에 있다.

유아 프로그램 중에는 만 4-5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한글교육 프로그램 '바나나를 탄 키키'란 프로그램이 있다. 주로 어휘력과 글자인지력 향상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으로 시청자들에게 큰 반향을 얻은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 제작기법도 다양한 애니메이션, 재미난 캐릭터 등으로 대상연령층의 구미에 맞게 제작되었다.

다. 일반교양 프로그램

일반교양 프로그램 중 국어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은 책 관련 프로그램이 많다. '책과 함께 하는 세상', '정운영의 책으로 읽는 세상' 등이다. 이외에 '우리말 우리글', '한국의 시', '세계의 문호' 등이 있다. '생방송 난상토론'은 말하기-듣기 관련 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다.

일반교양 프로그램 중 독특한 프로그램은 '우리들의 이야기극장'이라 하는 프로그램이다. 초등학교와 중학생 대상으로 소재, 주제 무제한의 드라마극본 공모를 실시하여 공모에서 수상한 극본들을 드라마로 제작하는 것이다. 이것은 쓰기교육과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문학교육과도 관련이 높다고 볼 수 있다.

2. 국어교육 프로그램 제작의 난점

가. 국어교육 학습자료 제작의 난점

국어교육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 상당한 난점이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국어교육의 세부분야인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언어, 문학 중 어떤 분야를 선택하여 제작해도 시청자 입장에서는 듣기 프로그램화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TV시청을 통해 이루어지는 언어행위는 듣기행위이며 자막 등의 읽기 행위는 부수적인 행위에 그칠 뿐이다.

그리고 국어교육 프로그램은 재미가 없다는 것이다. 프로그램을 재미있게 하는 요소는 다양하지만 교육내용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재미있

게 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에서 다루는 팩트가 재미있거나 새로워야 한다. 과학교과나 사회교과 등의 내용교과는 이런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먼저 제시한 팩트를 추리물처럼 추적해가면서 세부적이거나 연관된 팩트를 제시해 내용을 심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국어교과같은 도구교과는 재미있는 팩트를 구성하기가 너무나 어렵다.

예를 들어 초등 1, 2년 대상 쓰기교육을 목적으로 한 '미루의 요술글방'의 경우를 들어보면 담당제작자는 15분이라는 방송시간동안 한 아이টে만으로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게 구성하려고 하지만 내용이 주로 말과 글자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미있게 구성하기가 어려웠다고 한다. 심화하기보다는 유사한 연관 아이টে를 나열하는데 그쳤다고 한다. 그리고 쓰기영역을 선택한 것은 제작의 용이성과 함께 아이들에게 쓰기에 대한 거부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때문이라고 한다.

나. 학습자료 및 교양 프로그램 발전 방향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에서는 국어교과와 다른 교과를 통합해서 제작, 방송한다. 국어교과만의 내용으로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유아나 초등저학년의 경우 언어활동과 신체활동, 언어활동과 공작활동을 통합하기도 하며 초등학교학년부터는 국어교과와 사회교과, 국어교과와 과학교과 등을 통합한다. EBS에서도 향후 국어교육 관련 학습자료형 프로그램을 제작하게 될 때 이런 외국의 경향을 참조할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발표자의 개인의견을 첨부하자면 국어교과만의 내용으로도 가능한 것이 있지 않겠는가는 생각도 든다. 그것은 '어휘력' 관련 프로그램으로 유아 및 초등저학년 대상 프로그램으로도 가능하며 초등학교학년에 성인까지 포괄하며 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어린 아동들에게는 동음이의어, 유의어, 반의어 등이 제시되도록 재미난 이야기를 구성하고 애니메이션 영상으로 보여주면 재미있을 듯 싶다. 초등학교학년 이상에서는 퀴즈형식 등으로, 버라이어티 에듀테인먼트 프로그램

램의 한 코너로 활용할 수 있을 듯 싶다. 미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Between the Lions'라는 프로그램이 있다. 도서관을 배경으로 사람이 사서이고 사자들 일가들이 벌이는 황당한 상황을 애니메이션으로 그린 것으로, 이를 통해 영어의 약점인 표기, 단어 등을 학습하도록 유도하는 프로그램이다.

마지막으로 EBS에서 '우리들의 이야기극장'의 경우처럼 프로그램이나 공모제도 등을 통해 아이들이 말하기, 쓰기 등을 할 수 있는 기회나 공간을 제공하는 것도 유의미한 방향이라고 생각된다.

3. EBS에서 국어교육학회에 대한 제언

향후 EBS에서 국어교육 관련 프로그램은 교육의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교과강의' 프로그램을 제외하면 학습자료형 등으로는 주로 유아·초등저학년 대상에 집중 될 것이라고 본다. 그런데 기존에 유아·초등저학년 국어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제작하다보면 도움이 될만한 연구자료가 많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고 담당제작자들이 고충을 토로한다. 그래서 주로 외국자료들을 참조하거나 외국에서 생활하고 온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민간언어연구소의 도움을 받게 된다고 한다. 발표자도 유아의 언어발달 관련 프로그램을 기획, 제작하는 과정에서 한국어에 대한 언어발달 연구가 거의 안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실망한 적이 있다.

국어교육학회가 초등교육이나 유아교육까지 포괄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중등교과보다는 유아나 초등학생들의 언어발달, 언어학습에 대해 보다 깊은 연구가 있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유아에서 성인까지 한국인의 한국어발달, 학습에 대한 통찰적 연구가 있었으면 관련 프로그램 제작할 때에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문외한이지만 한국어발달, 학습에 대한 통찰적 연구는 초등교과서의 연구, 개발 등 다양한 국어교육 관련 분야에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고 믿으며 제언한다.

국어교육 관련 EBS 프로그램 현황 (2000 - 2002년 최근 2년간)

구분	대상	프로그램명	내용 및 특징
수험생용 교과 강의	고3 수험생	EBS수능특강- 언어영역	수능기본, 문제풀이위주
		수능출제유형분석- 언어영역	유형분석, 문제풀이위주
		수능First- 언어영역	상위권, 문제풀이위주
		EBS 논술특강	수능이후, 논술주제 관련 개념 설명 위주
	고1 고2	EBS TV 고교1학년 국어 EBS TV 고교2학년 국어	국어(상), (하)를 기초로 내용구성(폐지됨)
	고1,2	EBS TV 고교 문학	이종문학'을 기초로, 문제풀이 위주 (폐지됨)
		수능 포트리스-국어	국어(상),(하)를 기초로, 수능유형의 문제 강화
		수능 포트리스-문학	이종문학'을 기초로, 수능유형의 문제 강화
	고1	고득점으로 가자 - 국어	고1대상 겨울방학특강
	세미 교과 강의	고등 학생	EBS 고교문학특선
학습법 강의	언어영역 홀로서기		성적향상을 위한 학습법 특강(폐지됨)
비교과	즐거운 책읽기		독서교육용, 책을 매개로 한 간단한 토론 진행
내신용 교과 강의	중1 중2 중3	EBS TV 중학1학년-국어 EBS TV 중학2학년-국어 EBS TV 중학3학년-국어	중 1, 2, 3학년 국어교과의 기본개념 설명, 문제풀이 상대적으로 적음
학습 자료	중학생	진리의 오딧세이- 국어토론방	국어교과에 기초, 말하기-듣기 관련 학습자료형 프로그램
통합 학년	초등 1,2년	미루의 요술글방	초등 1, 2년 대상 쓰기교육 자료 다채로운 영상화면으로 제작

통합 학년	초등 5,6년	까미의 종알종알 국어이야기	초등 5,6년 대상 말하기, 읽기교육 자료 다채로운 영상화면으로 제작
유아 한글 교육	만 4-5세	바나나를 탄 키키	어휘력과 글자인지력에 초점, 다채로 운 영상화면으로 즐기며 학습 가능 수용자 반응이 상당히 좋았음
교양	일반	우리말 우리글	한글의 우수성과 올바른 사용법 소개
		책과 함께 하는 세상	책 매거진 프로그램. 명저 및 신작을 소개
		정운영의 책으로 읽는 세상	사회적 이슈와 연관된 신작, 고전 등 의 책 소개(폐지됨)
		한국의 시	한국의 시, 시인에 대한 소개
		문학기행	신작, 문제작 위주, 드라마구성, 작가 대담(폐지됨)
		세계의 문호	외화, 세계 대표적인 문호의 대표작 을 드라마구성으로 소개(폐지됨)
		생방송 난상토론	사회적 이슈에 대한 토론
	초등 학생	TV로 보는 원작동화	창작동화를 드라마로 재해석
		우리들의 이야기극장	초, 중학생이 직접 쓴 시나리오를 공 모 심사하여 드라마화(연간특집)
교사 연수	초중고	학교현장보고	학교수업에서 새롭게 시도되는 교수 학습모형에 대한 소개(폐지됨)
	초등	초등교육 교사연수	초등학교 교사대상 선진적, 독창적 교 수법 소개, 7차교육과정 소개(폐지됨)

〈초록〉

EBS와 국어교육

류 규 오

EBS는 '국어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EBS에서 방송된 국어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구분하면 '교과강의형', '비교과 학습자료형', '일반교양' 프로그램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교과강의 프로그램'들이었다. 이런 프로그램들은 사교육 문제가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었고 사교육비 절감을 원하는 국민적 요구가 있기 때문에 제공하는 것이다.

EBS는 학교현장 수업에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과 '학습자료형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하고 있다. 그러나 EBS의 비교과 학습자료형 프로그램들 중 국어교육 관련 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적으며 국어교과의 세부분야인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언어, 문학 중 영상화가 용이한 말하기와 문학분야 위주로 제작되어 왔다.

국어교과는 프로그램으로 제작할 때 상당한 난점이 있다. 첫 번째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언어, 문학 중 어떤 분야를 선택하여 제작하더라도 시청자 입장에서는 듣기 프로그램화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TV 시청을 통해 이루어지는 언어행위는 듣기행위이며 자막 등의 읽기 행위는 부수적인 행위에 그칠 뿐이다.

그리고 국어교육 프로그램은 재미가 없다는 것이다. 과학교과나 사회교과 등의 내용교과는 팩트 자체의 흥미성을 유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용심화도 가능하다. 그러나 국어교과 등의 도구교과는 내용이 심화하기보다는 유사한 연관 아이টে을 나열하는데 그치곤 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어교과와 다른 교과를 통합해서 제작, 방송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국어교과 중 '어휘력' 신장 프로

그림은 유아 및 초등저학년 대상으로 프로그램화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학계에서 유아에서 성인까지 한국인의 한국어발달에 대한 통찰적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핵심어】 국어교육, 교과강의형, 비교과 - 학습자료형, 일반교양

〈Abstract〉

EBS and Korean language education

Ryu, Kyu-o

EBS provides various programs related to the Korean language education. The Korean language educational programs aired through EBS are classified into three different formats: the school subject lecture form, the non-subject, study material form and the general cultural form.

The school subject lecture form programs consist of the largest portion. These programs aimed at meeting the need of people for reducing the private tuition fees and solving the problem of widespread private tutoring throughout the nation.

EBS produces and broadcasts many non-subject programs and study material programs for being used as reference in schools. However, the Korean language educational programs get relatively low rate in the non-subject, study material programs of EBS. And if there are some, they are focused only on the detailed areas of the Korean language education such as speaking and literature which are easy to visualize compared with other areas such as listening, reading, and writing.

The subject, Korean, has some difficult points for making as a TV program. First, to choose and produce any program of various fields such as speaking, listening, reading, writing, and literature becomes all the same listening-programs to viewers. The main speech function through watching the tele-

vision is listening, and the reading function like subtitles is attendant upon the listening.

Second, the Korean language educational programs are uninteresting. Science and Social Studies are interesting with the fact itself, and are possible to make further study. However, the instrumental subjects such as Korean are not able to deepen the contents, merely possible to arrange similar items.

For solving these problems, it is necessary to produce and broadcast the Korean educational programs combined with other subjects. And the vocabulary raising programs are able to be targetted on the infants and the lower graders of elementary school. Of course, the penetrating study about the Korean language development from infants to adults should be preceded.

【key word】 Korean language education, the school subject lecture form, the non-subject study material form, the general cultural form.